

우상혁 “부상 아쉬워…내일부터 다시 달릴 것”

도쿄 세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2위
올해 네 차례 모두 꺾었던 커와 명승부
지난달 진단 종아리 근막 손상이 발목
2022년 미국 대회 이어 2번째 은메달

최선을 다했고, 명승부도 펼쳤지만 아쉬움
은 남았다.

우상혁(29)은 16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
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넘어 2m36의
해미시 커(뉴질랜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도쿄 국립경기장을 뜨겁게 달군 명승부
였다.

13명이 출전한 결선에서 우상혁은 2m20
과 2m24를 1차 시기에 넘었고, 2m28과 2
m31은 2차 시기에 성공했다. 2m34를 1, 2
차 시기에서 실패한 뒤 우상혁은 “할 수 있
다. 상혁아”라고 읊조리며 3차 시기를 시작
해 바를 넘었다. 커도 3차 시기에서 2m34를
통과해 우상혁과 커의 2파전이 시작됐다.

우상혁은 2m36을 1차 시기에서 실패했
고, 커는 1차 시기에서 바를 넘었다. 우상혁
은 바를 2m38로 올려 승부수를 던졌지만,
2차와 3차 시기에서 바를 건드리며 2위로
경기를 마쳤다.

2022년 미국 유진 대회에서 2m35를
넘고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
달을 따낸 우상혁은 도쿄 대회에서 은빛

메달을 추가했다.

이날까지 한국이 세계육상선수권에서
따낸 메달은 총 3개(은 2개, 동 1개)다.

2011년 대구 대회 남자 20km 경보에서
김현섭은 당시에는 6위를 했지만, 앞선 기
록 선수 3명의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밝혀
져 2019년 8월 ‘대구 세계선수권 3위’로 공
인받았다.

우상혁은 한국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
메달을 2개 이상 따낸 선수로 기록됐다. 놀
라운 성과지만, 한국 육상 첫 실외 세계선
수권 우승을 놓친 건 아쉽다.

우상혁은 경기 뒤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금메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부상이 있
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다”며 “오늘
의 성과는 오늘까지만 만족하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달리겠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우상혁은 도쿄 세계선수권에 앞서서 출
전한 7개의 국제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커와의 맞대결에서도 4전 전승을 거뒀다.
하지만, 8월에는 종아리 부상 탓에 한 경기
도 출전하지 못했다. 병원 검진에서 종아리
근막 손상 진단을 받았다.

우상혁은 “부상을 당해보니, 내가 많은
응원을 받는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됐다”
며 “김도균 감독님은 물론이고, 용인시청,
대한육상연맹, 팬 분들까지 많이 걱정하시
고 응원해주셨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
했다.

연합뉴스



우상혁이 16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우아하
게 바를 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박석민 아들’ 복일고 투수 박준현 키움 유니폼

KBO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

박석민 전 두산 베어스 코치의 아들인 천안
복일고 오른손 투수 박준현(18)이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키움 히
어로즈의 지명을 받았다.

키움은 17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호텔 월
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박준현을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호명했다.

박준현은 올해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10경기 2승 1패, 평균자책점 2.63(40과 3
분의 2이닝 18실점 12자책)을 기록한 고교



최고 투수다.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던
지는 박준현은 일찌감
치 신인 드래프트 1순
위 입단이 확실시됐
다. 박준현은 최근 학
교폭력 의혹을 받았지
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는 고교 졸업 예정자
930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61명, 얼리 드
래프트 신청자 51명, 해외 아마추어 및 프
로 출신 등 기타 선수 19명 등 총 1261명이
참가했다.

박준현과 함께 ‘빅3’로 꼽히던 광주제일고
투타 겸업 선수 김성준은 미국프로야구 텍
사스 레인저스, 장충고 오른손 투수 문서준
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을 추진하면서
이번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민과 함께 강한해군 해양강국



2025 FLEET REVIEW
대한민국해군 관함식

해상사열 및 훈련시범
9.25.(목), 26.(금)

함정공개행사
9.25.(목)~27.(토)

KFN 위문열차
9.27.(토) PM 7:30



www.navy80.kr

2025 해군 창설 80주년 대한민국해군 관함식

Republic of Korea Navy
Fleet Review

2025. 9.25.(목) ~ 9.27(토) | 해군 부산작전기지